

## 우상 숭배와 족외혼의 상관관계

— 홍수 이후 셈의 계보에 나타난

가이난(칠십인역 창 10:24; 11:12-13)과 아브람을 중심으로 —

이창엽\*

###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11:10-26은 셈에서 아브람까지 이르는 계보이다.<sup>1)</sup> 이 계보는 창세기 5:1-32와 비교하여 설명되는 편이다.<sup>2)</sup> 창세기 5:1-32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를 소개하고, 창세기 11:10-26은 셈부터 데라까지 한 세대가 적은 9세대를 언급한다. 그런데, 마소라 사본(이하 MT) 창세기 11:10-26은 9세대를 소개하지만, LXX 창세기 11:10-26에는 10세대가 언급된다. 그 이유는 아르박삿의 아들로 12-13절에 가이난이 언급되고, 가이난은 셀라를 낳은 아버지로 소개되기 때문이다.<sup>3)</sup> 가이난은 예수의 계보를 다루는 누가복음 3:36에 아박삿(Ἀραβιάδ,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Καϊνάμ 혹은 Καϊναν)으로 소개된다. 가이난이란 이름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학자는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신학과 교수. [changyoplee@anyang.ac.kr](mailto:changyoplee@anyang.ac.kr).

1) 아브람은 MT 창 17:5와 회 15:7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으로 불리는데, 본 논문에서 창 17:5와 회 15:7 이전 본문을 주로 다루므로 편의상 아브람으로 부른다. 단, 이 구절 이후 및 더 넓은 범위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브라함으로 부른다.

2) 가인의 계보는 셋의 계보 앞에 위치하고, 야벳과 함의 계보도 셈 계보 앞에 위치한다. 셈의 계보는 아브람의 계보가 드러나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이다. 강규성은 이같이 언급한 뒤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의 위치, 야벳과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의 위치가 선택계열의 계보와 비선택계열의 계보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강규성,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 창세기에 대한 성경신학적 묵상』 (서울: 예영비엔피, 2010), 63-66.

3) LXX 대상 1:18에도 ‘가이난’이 언급되는 사본도 있다.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79), 753.

누가복음 3:37에 언급되는 가이난(창 5:9에는 계난)은 서기관의 잘못으로 36절에 들어갔고, 이어서 LXX 창세기 10:24와 11:12-13에 들어간 것으로 주장한다.<sup>4)</sup> 이 같은 입장을 따를 경우, 가이난은 2차적으로 추가된 것이다.<sup>5)</sup> 다른 입장을 가진 학자는 가이난은 원래부터 창세기 히브리어 본문에 있었지만 서기관의 실수로 생략되었고, 현재 우리가 가진 MT처럼 되었다고 주장한다.<sup>6)</sup> 필자는 가이난이란 이름이 창세기 히브리어 본문에 처음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사본학적으로 본문의 전수 및 발달과정과 연관하여 논의하기보다는 가이난을 언급하는 LXX 창세기 11:12-13이 MT와 다르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가이난이 언급되는 여러 본문을 비교하고, 마침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족외혼(exogamy)과 우상 숭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년서를 살펴본다.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창세기’로도 불리는 회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MT와는 다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담은 히브리어 본문의 내용을 재서술한 책이다.<sup>7)</sup> 회년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구약성경 본문의 해석학적 맥락을 제공한다. 필자의 이 논문으로는 회년서가 담고 있는 신학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는 않다. 다만 홍수 이후 셈의 계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MT에 대한 당시의 특정 해석 경향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홍수 이후 셈부터 아브람까지 이르는 셈의 계보를 함과 야벳의 계보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둘째, 아르박삿으로 시작하는 홍수 이후의 계보에서 언급되는 가이난은 어떤 인물이었고, 가이난이 셈 계열에 유입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이난과는 달리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아들로 언급되는 아브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회년서의 도움을 받아 살펴본다.<sup>8)</sup> 셋째, 셈의 가계도를 족내혼과 족외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가이난이 시작한 족외혼과 아브람의 족내혼(endogamy)을 우상 숭배와 연관하여 회년서를 통해

4) A. E. Steinmann, “Challenging the Authenticity of Cainan, Son of Arpachshad”, *JETS* 60 (2017), 697-711.

5) G. J. Wenham, *Genesis 1-15* (Waco: Word Books, 1987), 251.

6) H. B. Smith Jr. and K. J. Udd, “On the Authenticity of Kainan, Son of Arpachshad”, *DBSJ* 24 (2019), 119-154.

7) J. C. VanderKam, *Jubilees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ubilees Chapters 1-21* (Minneapolis: Fortress, 2018), 37-38, 85-86 참조.

8) 필자는 이 논문을 회년서를 다루는 본인의 첫 번째 작업으로 여긴다. 그리고 회년서에 언급되는 아브람과 MT, LXX에 언급되는 아브람과의 비교 연구는 별도의 연구 논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후속 작업을 기대한다. 배정훈은 회년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저자 당대의 이상적 신앙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배정훈, “회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구약논단」 30 (2008), 81.

확인해 본다. MT와 LXX 창세기 5장과 11장 본문만 읽을 경우 셈의 후예들은 족내혼을 통해 순수한 혈통으로만 계승되었고, 창세기 11장에 언급되는 홍수 이후 셈의 계보도 또한 순수한 혈통을 이어간 계보로 이해한다. 하지만, 희년서에 소개되는 각 족장과 결혼한 여인들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면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희년서의 이 같은 정보를 통해 가이난부터 아브람(희 8:1-9; 10:18; 11:1, 7-10, 14-24; 12:1-31)에 이르기까지 가계도가 어떤 점에서 셋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와 다른지 확인한 후, 필자는 족내혼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창세기 11:10-26에 나타난 셈부터 아브람까지의 계보

창세기 5장과 비교할 때 창세기 11:10-26의 계보는 첫아들을 낳은 나이와 그 이후의 연수, 자녀를 낳았다는 정보를 소개하지만, 총 연수를 살고 죽었다는 언급이 없다.<sup>9)</sup> 하지만, 사마리아 오경은 이를 소개한다. 창세기 5장은 10세대를 다루지만, MT 창세기 11장은 9세대를 다룬다.<sup>10)</sup>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하였듯이 LXX 창세기 11:10-26에는 12-13절에 가이난이 아르박삿의 아들로 소개되고, 셀라의 아버지로 가이난이 언급된다. 아래의 첫 번째 표는 가이난이 포함된 홍수 이후 10세대의 이름과 그들이 첫아들을 낳았을 때와 그 이후 살았던 연수를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 표는 1세대 아담부터 23세대 야곱까지 소개하고, 아담이 태어난 해를 제1년으로 시작하여, 각 세대가 죽은 연수를 더하여 연도를 계산하였다.

9) Pg(Priesterschrift Grundschrift, 제사장 자료층)는 “그가 죽었다”를 언급한다. P. Guillaume, *Land and Calendar: The Priestly Document from Genesis 1 to Joshua 18* (New York: T & T Clark, 2009), 17; 한국 구약학계에서는 Pg를 제사장 자료층(Priestly Layer)으로 명한다. 이은우,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7 (2023), 246-247; 일련의 학자들은 Pg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나름대로 완결된 제사장적 역사적 이야기로 본다. P. Guillaume, *Land and Calendar*, 11. Pg의 존재를 인정하는 학자들(Lohfink, Pola, Guillaume, Frevel) 사이에도 Pg의 구체적인 장과 구절의 범위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Ibid., 193-195), 창 11:10-26에 언급된 명단과 그들의 연수를 다룰 때의 본문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홍수 이후 셈 계열의 연대에 대한 것은 기욤(P. Guillaume)의 표를 참조하라. Ibid., 57.

10) 가이난을 언급하는 LXX는 창 5:1-32처럼 10세대를 소개한다.

<표 1> 창세기 11:10-26에서 나타난 셈-아브람까지의 연대기

	MT	LXX	SP <sup>11)</sup>	Pg
셈	100/500	100/500	100/500 ⇒ 600 <sup>12)</sup>	100/500
아르박삿 <sup>13)</sup>	35/403	135/430	135/303 ⇒ 438	135/430 <sup>14)</sup>
가이난(게난)	없음	130/330	없음	130/330
셀라	30/403	130/330	130/303 ⇒ 433	130/403
에벨	34/430	134/370	134/270 ⇒ 404	134/430
벨렉	30/209	130/209	130/109 ⇒ 239	130/209
르우	32/207	132/207	132/107 ⇒ 239	132/207
스룩	30/200	130/200	130/100 ⇒ 230	130/200
나홀	29/119	79/129	79/69 ⇒ 148	29/119
테라	70/205-70= 135 <sup>15)</sup>	70/205-70= 135	70/75 ⇒ 145 <sup>16)</sup>	70/205-70= 135
아브람의 출하란 <sup>17)</sup>	75/175-75= 100	75	75	75

- 11) SP는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이다.
- 12) 아들을 낳은 때/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살았던 연수를 각각 의미한다. 기호(⇒) 다음에 적힌 숫자는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즉 사람이 죽었을 때의 나이(수명)를 말한다.
- 13) 창 10:22에서 아르박삿은 세 번째로 소개된다. 웨스터만(C. Westermann)은 창 10:22의 목록에서 언급되는 아르박삿은 개인의 이름으로 읽기보다는 종족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본다. C. Westermann, *Genesis 1-11*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561-562. 하지만, 필자는 22, 24절의 아르박삿은 개인 이름으로 읽는다.
- 14) 기욤이 번역한 Pg 본문에 언급된, 아들을 얻은 인물들의 나이보다 제2장에서 홍수 후 세대의 연수를 정리한 표에 언급된 연수는 100년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등이다. 기욤의 책의 경우 도표에 언급된 그들의 연수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P. Guillaume, *Land and Calendar*, 57.
- 15) 테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창 11:32)는 진술에서 그가 아브람을 낳고 난 뒤 135년의 기간은 창 12:1-25:11의 여러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MT에 의하면 테라는 하란에서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6) SP에서 테라의 수명은 145세로 MT, LXX 기록보다 60년 적다. Ibid., 57, 각주 17; 스테반의 연설을 다루는 행 7:4에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말한다. 테라의 죽음과 아브람의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S. P. Brock, “Abraham and the Ravens: A Syriac Counterpart to Jubilees 11-12 and its Implications”, *JSJ* 9 (1978), 135-152; W. Adler, “Abraham and the Burning of the Temple of Idols: Jubilees Traditions in Christian Chronography”, *JQR* 77 (1986/1987), 95-117; K. D. Dobos, “The Consolation of History: A Reexamination of the

<표 2> 창세기 족장들의 연수

	x	y	x+y=z	족장의 죽은 때 <sup>18)</sup>
1세대. 아담	130	800	930	930
2세대. 셋	105	807	912	1042
3세대. 에노스	90	815	905	1140
4세대. 케난	70	840	910	1235
5세대. 마할랄렐	65	830	895	1290
6세대. 야벳	162	800	962	1422
7세대. 에녹	65	300	365	987
8세대. 므두셀라	187	782	969	1656
9세대. 라멕	182	595	777	1651
10세대. 노아	500	450	950	2006
11세대. 셸	100	500	600	2156
12세대. 아르박삿	35	403	438	2094
13세대. 가이난(Kainan)	MT에 없음			
14세대. 셸라	30	403	433	2124
15세대. 에벨	34	430	464	2185
16세대. 벨렉	30	209	239	1994
17세대. 르우	32	207	239	2024
18세대. 스투	30	200	230	2047
19세대. 나홀	29	119	148	1995
20세대. 데라	70	135	205	2081
21세대. 아브람	100	75	175	2121 <sup>19)</sup>
22세대. 이삭	60	120	180	2226
23세대. 야곱	84	63	147	2253

위의 표를 따르면, 아브람이 태어났던 해를 1946(2121-175=1946)년으로 보면, 노아부터 데라까지의 모든 족장들이 살아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아브람이 하란으로 떠날 때, 홍수 후 2년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인 아르박삿이

---

Chronology of the Abraham Pericope in the Book of Jubilees”, *Henoah* 31 (2009), 84-91; J. C. VanderKam, *Jubilees 1*, 460-463.

17) 희 12:28에 따르면 아브람은 그의 나이 77세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다. J. C. VanderKam, *From Revelation to Canon: Studies in the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Literature* (Leiden: Brill, 2000), 534; 게비르츠(S. Gevirtz)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아브라함:  $175=7x5^2$ , 이삭:  $180=5x6^2$ , 야곱:  $147=3x7^2$ . S. Gevirtz, “The Life Spans of Joseph and Enoch and the Parallelism”, *JBL* 96 (1977), 571.

18) 아담부터 라멕까지 연도 계산은 웨넘(G. J. Wenham)을 참조하라. G. J. Wenham, *Genesis 1-15*, 131.

19)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1946+75=2021)에는 셸라, 에벨, 르우, 데라가 살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SP를 따를 경우 에벨이 살았던 시기(1651-2055)에 노아가 죽는 것(2006)으로 계산된다.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 노아는 살아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셈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홍수 사건은 아브람에게는 아주 고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홍수 이후 셈의 후예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데, 셈, 함, 야벳의 순서에 대한 것이다. 창세기 5:32에서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을 때 노아의 나이는 500세였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고(창 7:6), 홍수 이후 2년 나이가 100세인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말한다(창 11:10). 창세기 7:6과 11:10에 각각 거론된 사건 사이에는 2년 차이가 나므로, 창세기 5:32를 난외주, 첨가로 보기도 하고, 500이라는 숫자를 대략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오백 세 된 후로 번역한다.<sup>20)</sup> 창세기 9:24에서 함이 작은 아들(בְּנוֹ הַקָּטָן)로 소개된다.<sup>21)</sup> 우리는 창세기 9:24에서 함이 노아의 셋째 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셈과 야벳 중에서 누가 큰아들인지는 10:21에 사용된 ‘큰’이란 형용사가 무엇을 꾸미느냐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לְחֵם יָפֶֿת׃ הַקָּטָן(MT)

ἀδελφῶ Ἰαφεθ τοῦ μείζονος(LXX)

형용사 ‘크다’는 형제를 꾸미거나 혹은 야벳을 꾸미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sup>22)</sup>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의 구문에서 형용사는 고유명사를 꾸

20) 『새번역』은 “오백살이 지나서”로 번역하여 『개역개정』과 유사하게 번역한다. 하지만, 『공동개정』은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오백 세였다고 번역한다.

21) 라쉬는 도덕적으로 “작은”, 즉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M. Carasik, *Genesis, The Commentators' Bible, Accordance electronic edition, ver. 1.4*. 『개역개정』은 각주에 ‘작은’을 ‘둘째’로 이해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22) 카수토(U. Cassuto)는 “and unto Shem, to him also were children born, the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Eber, the brother of Japhet, the eldest”로 야벳을 큰아들로 소개한다.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Skokie: Varda Books, 2012), 216. 카수토는 ‘크다’는 ‘형제’를 꾸미는 단어가 아니기에 ‘야벳의 가장 큰 형제’가 아니라 ‘가장 큰, 야벳의 형제’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가 우위에 있기에 첫째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사회 질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Ibid., 218); 카수토의 번역과 유사한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의 LXX 영역은 다음과 같다. “And to Shem, also to him as father of all the sons of Eber, brother of Iaphet the Greater, there was procreation”. R. J. V. Hiebert, “Genesis”, A. Pietersma and B. G. Wright, ed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2; 웨넬도 ‘큰’이란 형용사가 야벳을 가리키는 어구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G. J. Wenham, *Genesis 1-15*, 212, 228.

미기보다는 보통 명사를 꾸민다.<sup>23)</sup> MT, LXX에서 ‘크다’는 형제를 꾸미는 말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큰 야벳의 형제’가 아니라 ‘야벳의 큰 형’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여러 현대어 번역과 주석에 소개되는 사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셈이 야벳의 큰 형이다. 이처럼 창세기 10:21의 구절은 셈이 야벳의 형임을 분명히 밝힌다. 결국, 나이순으로 보면 셈, 야벳, 함의 순서이다.<sup>24)</sup>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의 계보에는 둘째인 야벳이 먼저 소개되고, 막내인 함을 두 번째로 다룬 뒤, 마지막으로 큰 형인 셈을 소개한다. 야벳, 함, 셈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셈에 대해서는 창세기 10:25-31에는 셈-에벨-욕단의 계보가 먼저 소개되지만, 홍수 이후 셈의 진정한 계보는 셈-에벨-욕단의 계보가 아니라 창세기 11:10-26에 언급되는 셈에서 시작하여 에벨, 벨렉으로 이어져 그 끝부분에 데라를 언급하고, 아브람이 마지막에 언급되는 계보이다.<sup>25)</sup>

## 2.2. 가이난(히 8:1-4)의 행적, 점성술과 아브람의 여호와 신앙(히 11-12장)

희년서 2:23에 “아담부터 그에게까지 인류의 22명 지도자가 있었고, 천지창조의 7번째 날까지 22종류의 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문맥상 희년서 2:20에 언급되는 야곱이다. 희년서 2:23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22개의 창조의 기사를 언급한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고, 22명의 족장들을 언급한 다음에, 야곱이 소개된다. 야곱, 즉 야곱의 후손들은 소유된 백성, 장자이고, 그들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한다(히 2:19-24). 위에 언급된 두 개의 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MT에는 없지만, LXX 창세기 11:12-13과 누가복음 3:36에 언급되는 가이난이다. 희년서 히브리어 저본(Vorlage)에 사용된 창세기 본문에는 가이난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희년서 2:23에 분명히 소개되는 22명의 지도자 즉, 족장들 안에 가이난은 포함된다. 이처럼 가이난은 희년서 안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삽입된 인물 혹은 없어도 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sup>27)</sup>

23) N. Sarna, *The JPS Torah Commentary Genesis*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78.

24) 창 5:32; 6:10; 9:18; 10:1; 대상 1:4에는 “셈, 함, 야벳” 순으로 언급된다.

25) 김윤희는 MT 창 1-11장 전체 구조 안에서 셈의 톨레도트는 셈-에벨-욕단이 아니라 셈-에벨-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이고, 셈-에벨-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김윤희, “바벨 서술 심판인가 축복인가?”, 『정경과 신학』 68 (2013), 271-272.

26) J. C. VanderKam, *Jubilees 1*, 168, 198.

27) Ibid., 363, 각주 7; J. T. A. G. M. Van Ruiten, *Abraham in the Book of Jubilees: The Rewriting of Genesis 11:26-25:10 in the Book of Jubilees 11:14-23:8* (Leiden: Brill, 2012), 315, 각주 14.

필자의 관심 인물인 가이난을 살펴보자. 회년서 8장에 따르면, 가이난은 12세대인 아르박삿과 라수에야 사이에 태어난다(회 8:1).<sup>28)</sup> 라수에야는 “수산의 딸, 엘람의 딸”이란 수식어가 있는데(회 8:1),<sup>29)</sup> 엘람은 셈의 첫 번째 아들이다(창 10:22; 회 7:18). 수산은 셈의 후예들의 땅 이름 목록 가운데 언급되기도 하지만(회 8:21, 9:2), 회년서 8:1에 언급되는 수산을 인명으로 볼 때 아르박삿과 라수에야의 결혼은 셈 계열 안에서 행한 족내혼 결혼이다.<sup>30)</sup> 가이난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그의 아버지 아르박삿으로부터 문자를 배우고, 친족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자신만의 도시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간다. 가이난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한다.<sup>31)</sup> 가이난은 대홍수 이전 고대인들이 바위에 새긴 비문을 발견한다(회 8:3). 그 비문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전수해 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점성술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32)</sup> 그는 이를 손수 옮겨 적었을 뿐 아니라 비문에 기록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죄를 범한다. 가이난은 비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지만, 이를 노아를 포함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회 8:4).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성술과 관련된 것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구절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회년서 12:12에 아브람이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섬긴 ‘우상의 성소’를 불태운다. ‘우상의 성소’라는 문구에 대해 시리아 연대기(Syriac Chronicles)에는 “가이난의 성소”로 소개한다.<sup>33)</sup> 바 헤브라이우스(B. Hebraeus)는 가이난이 점성술을 발명했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신으로 섬겼고, 그를 위해 우상을 세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sup>34)</sup> 회년서와는 달리 시리아 연대기에서 가이난을 우상으로 소개하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28) 위의 2.1에 언급된 표 안의 이름을 세대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부를 수 있다. 아담은 1세대, 셋은 2세대, 에노스는 3세대, 마지막으로 이삭은 22세대에 해당한다.

29) “수산의 딸, 엘람의 딸”로 읽을 경우 아르박삿은 형제인 엘람의 손녀와 결혼한 것이 된다. 반더캄(J. C. VanderKam)은 원 본문에는 “엘람의 아들 수산의 딸(the daughter of Susan the son of Elam)”이었을 것으로 본다. J. C. VanderKam, *Jubilees 1*, 362.

30) 부록에 소개되는 ‘회년서에 나타난 노아부터 아브람까지의 가계도’를 참조하라.

31) 글자를 처음 읽힌 자는 에녹이다(회 4:17).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그의 아들 아브람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다(회 11:16). 나홀은 데라에게 갈대아인의 학문을 가르쳐 준다. 데라가 배운 것은 점성술과 연관된다(회 11:8).

32) 에녹1서 8:3에는 점성술과 연관된 6명의 천사의 이름과 그들이 담당한 분야가 소개된다.

33) S. P. Brock, “Abraham and the Ravens”, 138; J. C. VanderKam, *The Book of Jubilees* (Lovanii: Aedibus E. Peeters, 1989), 336; J. C. VanderKam, *Jubilees 1*, 450-451.

34) S. P. Brock, “Abraham and the Ravens”, 149.

창세기 11:1-9에 언급되는 바벨탑 사건은 12세대인 아르박삿부터 21세대인 아브람까지의 계보와 연관되지 않고 MT와 LXX에는 독립적으로 먼저 소개되지만,<sup>35)</sup> 회년서 10장에서는 16세대인 벨렉이 르우를 낳고 난 후 시날 땅에 도시와 탑 건축 사건이 언급된다(회 10:19-26).<sup>36)</sup> 르우의 장인, 즉 그의 아내, 아라의 부친의 이름은 우르인데, 벨렉과 동시대 사람인 우르는 우상을 만들었고, 벨렉의 손자 18세대인 스룩도 우상 숭배자였다(회 11:7).<sup>37)</sup>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회년서 8:4에서 가이난은 비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고,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13세대인 가이난이 행했던 점성술은 그의 후손들이 행한 다른 우상 숭배적 행위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가이난이란 이름은 점성술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이난은 홍수 이후 셈 계열 안에 처음으로 점성술을 도입한 인물이었다.

우상 숭배자인 스룩은 19세대인, 그의 아들 나홀에게 점성술을 가르쳐 준다(회 11:8). 나홀의 아들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수 24:2). 아브람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 땅의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회 11:16상). 이어서 데라가 아브람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지만, 아브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탈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회 11:16하-17). 이때가 그의 나이 14살이었다(회 11:18).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우상 숭배의 불합리함을 피력한다(회 12:1-5). 이 말을 들은 데라는 우상 숭배가 유익이 없고 헛되다는 아브람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웃한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우상을 어쩔 수 없이 섬긴다고 말한다(회 12:6-7). 아브람은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파괴한다(회 12:12). 이때 아브람의 동생 하란은 불 가운데서 우상을 건져 내려고 하지만, 불에 타서 죽는다(회 12:13-14; 창 11:28 참조). 데라는 그의 아들들(아브람과 나홀)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한다(회 12:15). 마침내 아브람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회 12:16; 창 12:4), 아브람은 여호와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이스

35) 바벨탑 사건에 관련하여 김대웅과 김윤희의 글을 참조하라. 김대웅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건축 사건은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뒤흔드는 허망한 실패한 시도로 본다. 김대웅,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Canon&Culture』 9 (2015), 226, 242.

36) 하경택은 바벨탑 사건은 창 10:10에 언급되는 시날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장신논단』 44 (2012), 68.

37) 브록(S. P. Brock)은 시리아 연대기는 회년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 주는 또 다른 전통으로 이해한다. 이 전통에서 가이난은 우상이며 신으로 소개되고 있다. S. P. Brock, “Abraham and the Ravens”, 150.

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희 12:22-24). 데라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아들 아브람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 이 축복의 말에 사용된 여러 표현은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고, 유일신론적 내용으로 아브람을 축복한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리라  
 그가 너를 보는 자 앞에서 너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베풀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할 힘이 없기를 기원한다. 평안히 가라  
 내가 살기에 좋은 땅을 보거든, 이리로 와서 나를 네게로 데려가라  
 네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너의 아들로 취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희 12:29-30)”<sup>38)</sup>

희년서 12장 이후에는 데라의 다른 행적은 언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데라가 그의 삶의 초창기에 우상을 섬겼던 것과는 다르게 우상의 성소를 파괴하고, 평범하지 않았던 아들 아브람으로 인해 데라의 신 관념도 어느 정도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년서는 데라에 대해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체를 요약하자면, 셈 계열에서 점성술을 도입한 인물이 13세대인 가이난이었고 이후에 대를 이어 우상 숭배자들이 나온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셈 계열에서 끊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아브람이었다.

### 2.3. 가이난이 시작한 족외혼과 아브람의 족내혼

MT 창세기 5:3-32와 11:10-26의 계보에는 남자 이름만 언급하여 부계 혈통만 소개하고, 아내와 어머니는 소개되지 않는다. 반면에, 희년서는 부계 혈통을 언급하면서 모계 혈통도 함께 소개하기 때문에 각 세대의 결혼에 대해 희년서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홍수 전 10세대를 살펴보자. 1세대인 아담부터 4세대 계난까지 오빠와 여동생이 서로 결혼한다(셋과 아주라, 에노스와 노암, 계난과 무알렐릿). 가인 계열과 통혼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sup>39)</sup> 이후 세대는 아버지의 형제(삼촌)

38) 데라의 축복이 구약성경과 유사한 구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관찰에 대해서는 반더캄의 주석을 참조하라. J. C. VanderKam, *Jubilees 1*, 459-460.

39) 가인은 아완과 결혼하여 에녹을 낳지만(희 4:9), 그 후손을 자세히 소개하는 창 4:17-24와는 달리 희 4:31에서는 “가인의 집이 무너져 하나님의 징벌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 뒤 더이상 가인의 후예에 대해 소개하지 않는다. B. Halpern-Amaru, “The First Woman, Wives and Mothers in ‘Jubilees’”, *JBL* 113 (1994), 617; B. Halpern-Amaru, *The Empowerment of*

의 딸이나 아버지의 자매(고모)의 딸과 결혼한다.<sup>40)</sup> 5세대인 마할랄렐부터 10세대인 노아까지는 사촌 간에 결혼한다. 이처럼 철저한 족내혼이 10세대 동안 지속되었다.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함 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분파로 훨씬 더 분화하여, 셈의 후예가 야벳의 후예와 결혼하는 것이 족외혼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홍수 이후 셈 계열 세대를 살펴보자.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수산의 딸 라수에야와 결혼한다(회 8:1). 한편,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은 셈 계열이 아닌 야벳의 아들 마대의 딸 멜카와 결혼한다(회 8:5).<sup>41)</sup> 이 사실만 보면 가이난은 홍수 이후 시대에 셈 계열 중에서 처음으로 족외혼을 한 사람처럼 평가할 수 있지만, 가이난의 아내 멜카의 무명의 어머니는 아르박삿의 누이, 즉 가이난의 고모이기 에(회 10:35),<sup>42)</sup> 우리는 가이난이 철저하게 족외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난은 셈 계열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야벳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족외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 집단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sup>43)</sup> 이처럼 셈 계열이 아닌 여인과 결혼한 첫 번째 사람은 가이난이다. 아버지의 형제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족외혼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점성술을 도입하고, 우상 숭배자가 셈 계열에도 나오게 된다. 위에서 논증하였듯이 셈 계열에서 점성술이라는 우상 숭배를 처음 시행한 자는 13세대 가이난이다. 그의 후손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대를 잇는다.

15-17세대인 에벨, 벨렉, 르우와 19세대인 나홀은 아버지의 형제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족외혼을 한 자들이다.<sup>44)</sup> 16세대인 벨렉이 르우를 낳았다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19.

- 40)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의 아내는 에드나인데 에드나의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에드나의 어머니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의(테라의) 아버지의 자매의 딸 즉 고모로 소개된다(회 11:14). 야곱의 아내들(레아, 라헬)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통해 야곱과 사촌 관계가 된다. B. Halpern-Amaru,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 19, 각주 32; B. Halpern-Amaru, “The First Woman, Wives and Mothers in ‘Jubilees’”, 617, 각주 31.
- 41) 멜카의 이름은 왕비의 뜻을 가지는 듯하다. J. Rook, “The Names of the Wives from Adam to Abraham in the Book of Jubilees”, *JSP* 7 (1990), 362.
- 42) 부록으로 소개되는 ‘회년서에 나타난 노아부터 아브람까지의 가계도’를 참조하라.
- 43) B. Halpern-Amaru,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 24; J. C. VanderKam, *Jubilees 1*, 365, 각주 19; 한편, 루크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계도를 파괴하지만 가이난은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셋 계열의 순수한 혈통을 계승하였다고 본다. J. Rook, “The Names of the Wives from Adam to Abraham in the Book of Jubilees”, 115.
- 44) 각주 25에서 김윤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MT 창 1-11장 전체 구조 안에서 셈의 톨레도트는 셈-에벨-육단이 아니라 셈-에벨-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이고, 셈-에벨-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된다.” 이 같은 언급은 MT만을 사용하여

는 언급 뒤에 시날 땅에서 (바벨)탑과 도시를 43년간 건축했다고 말한다(희 10:21). 17세대인 르우의 이름은 표적의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이름의 뜻이 당대의 탑 사건을 일러주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 벨렉이 아들의 이름을 르우(רְעוּ)라고 짓고 난 뒤 말하기 “인간이 이제 시날 땅에 도시와 탑을 짓는 사악한 계획으로 악하게(רָעָה) 되었다”고 말한다.<sup>45)</sup> 물론 우리는 벨렉이 아들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독자들에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 르우의 아내 아라는 케세드의 아들 우르의 딸이다(희 11:1). 케세드와 우르는 우상 숭배자였다(희 11:4). 르우의 처가에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저질렀다고 소개하기에, 르우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18세대인 스룩이란 이름도 당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희 11:6).<sup>46)</sup> 우상 숭배자인 스룩은 그의 아들 나홀에게 갈대아인의 점성술을 가르쳐 준다(희 11:7-8). 점성술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모습이 2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아브람의 형제 하란에까지 드러난다.

우리는 희년서가 족외 결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족외혼이 15세대인 에벨부터 시작하여 17세대인 르우까지 지속되고 19세대인 나홀도 족외혼을 통해 결혼한다. 족내혼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족외혼이 시작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6세대 벨렉부터 20세대 데라까지 우상 숭배자의 행태가 드러난다. 족외혼은 자녀에게 더 넓은 종교적 스펙트럼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종교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갈대아인들의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족외혼이 우상 숭배

---

이해할 경우 나름 의미있는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희년서에 나타난 에벨과 벨렉의 부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에벨, 벨렉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홍수 이후 셈에서 아브람에 이르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설명이다.

45) J. C. VanderKam, *Jubilees 1*, 412; 르우의 이름에 대해서는 ‘악하다(רָעָה)’로 이해하기보다는 르우엘(רְעוּאֵל, “하나님의 친구”)의 축약형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신의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2001), 1264; G. J. Wenham, *Genesis 1-15*, 251;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946. 하지만, 희 10:18의 설명처럼 인명 르우를 악한 시대상과 연결하는 것이 좀 더 알맞은 설명이다.

46) 스룩(סֻרֻק)은 ‘돌아서다(סָוַר[סָוַר])’ 혹은 ‘돌아서는 것(סָוַרָה, “배도, apostasy”)’과 관련된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J. C. VanderKam, *Jubilees 1*, 429; BDB, 693-694 참조. 한편, BDB 자체는 가지(טֻרְרִי, “덩굴손, tendril”)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관된 ‘후손(작은 가지)’으로 본다. BDB, 974.

47) B. Halpern-Amaru,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 27.

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아브람은 족내혼을 통해 사래와 결혼하였다. 여호와와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은 여호와 신앙을 다시 셈 계열에서 복원한 자였다. 아브람 이후 세대들도 족내혼을 통해 후손을 낳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 간다.

우리는 희년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희년서는 MT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절대적일 수 없고, 보충적 자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희년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은 창세기’라고 불리는 희년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우리는 족외혼과 우상 숭배가 함께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족외혼과 다른 종교를 가진 후손이 나오는 것이 필연적 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가이난이 족외혼을 도입하였고, 족외혼과 더불어 점성술과 우상 숭배가 셈 계열 안에 수용되어 나타난다. 족외혼과 우상 숭배가 서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인물은 아브람이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다시 셋 계열로 복원한 자였고, 사래와의 결혼을 통해 족내혼 또한 다시 복원된다.

### 3. 나가는 말

MT 창세기는 셈 계보의 뼈대를 제시하는 정경이다. 우리는 MT 창세기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희년서를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길 수 없지만, 희년서를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희년서가 각 족장의 아내의 이름과 그들의 결혼 관계 및 여러 이야기를 소개하기에 어떻게 혈통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MT 창세기 11:10-26에 나타난 셈의 계보는 큰 그림만 보여주지만, 희년서의 내용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것과 족내혼, 족외혼이 상관관계가 있음도 검토해 보았다.

희년서에 따르면, 13세대인 가이난은 바위에 새겨진 비문을 발견한 후 점성술을 알게 되고, 우상 숭배와 연관된 점성술을 셈 계열 안에 들여온 인물이었다. 가이난은 또한 홍수 이후 셈 계열 중에서 처음으로 족외혼과 연관된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가이난은 홍수 이후 셈 계열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인물이었다. 족외혼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형태가 그의 후손들에게 결국 나타난다. 그들은 그들의 씨족 너머에서 결혼 상대를 찾았고, 점성술을 수용하면서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 드러난다. 하지만 21세대인 아브람은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셈 계열 안에 다시 여호와 신앙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와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인 사래와의 족내혼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 간다.

<주제어>(Keywords)

족외혼, 가이난, 아브람, 셈의 계보, 희년서.

Exogamy, Cainan, Abram/Abraham, Genealogy of Shem, Book of Jubilees.

(투고 일자: 2025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규성,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 창세기에 대한 성경신학적 묵상』, 서울: 예영비엔 피, 2010.
- 김대웅,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Canon&Culture』 9 (2015), 213-252.
- 김윤희, “바벨 서술 심판인가 축복인가?”, 『성경과 신학』 68 (2013), 251-281.
- 배정훈, “희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구약논단』 30 (2008), 67-84.
- 이은우,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7 (2023), 244-266.
-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장신논단』 44 (2012), 57-83.
- Adler, W., “Abraham and the Burning of the Temple of Idols: Jubilees Traditions in Christian Chronography”, 『JQR』 77 (1986/1987), 95-117.
- Brock, S. P., “Abraham and the Ravens: A Syriac Counterpart to Jubilees 11-12 and its Implications”, 『JSJ』 9 (1978), 135-152.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 Carasik, M., *Genesis*, The Commentators' Bible, Accordance electronic edition, ver. 1.4.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Skokie: Varda Books, 2012.
- Dobos, K. D., “The Consolation of History: A Reexamina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Abraham Pericope in the Book of Jubilees”, 『Henoch』 31 (2009), 84-91.
- Gevirtz, S., “The Life Spans of Joseph and Enoch and the Parallelis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6 (1977), 570-571.
- Guillaume, P., *Land and Calendar: The Priestly Document from Genesis 1 to Joshua 18*, London: T & T Clark, 2009.
- Halpern-Amaru, B.,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 Halpern-Amaru, B., “The First Woman, Wives and Mothers in ‘Jubilees’”, 『JBL』 113 (1994), 609-626.
- Hiebert, R. J. V., “Genesis”, A. Pietersma and B. G. Wright, ed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41.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2001.
- Rahlf's, A.,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79.

- Rook, J., “The Names of the Wives from Adam to Abraham in the Book of Jubilees”, *JSP* 7 (1990), 105-117.
- Sarna, N., *The JPS Torah Commentary Genesis*,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mith Jr., H. B. and Udd, K. J., “On the Authenticity of Kainan, Son of Arpachshad”, *DBSJ* 24 (2019), 119-154.
- Steinmann, A. E., “Challenging the Authenticity of Cainan, Son of Arpachshad”, *JETS* 60 (2017), 697-711.
- Van Ruiten, J. T. A. G. M., *Abraham in the Book of Jubilees: The Rewriting of Genesis 11:26-25:10 in the Book of Jubilees 11:14-23:8*, Leiden: Brill, 2012.
- VanderKam, J. C., *From Revelation to Canon: Studies in the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Literature*, Leiden: Brill, 2000.
- VanderKam, J. C., *Jubilees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ubilees Chapters 1–21*, Minneapolis: Fortress, 2018.
- VanderKam, J. C., *The Book of Jubilees*, Lovanii: Aedibus E. Peeters, 1989.
- Wenham, G. J., *Genesis 1-15*, Waco: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 *Genesis 1-11*,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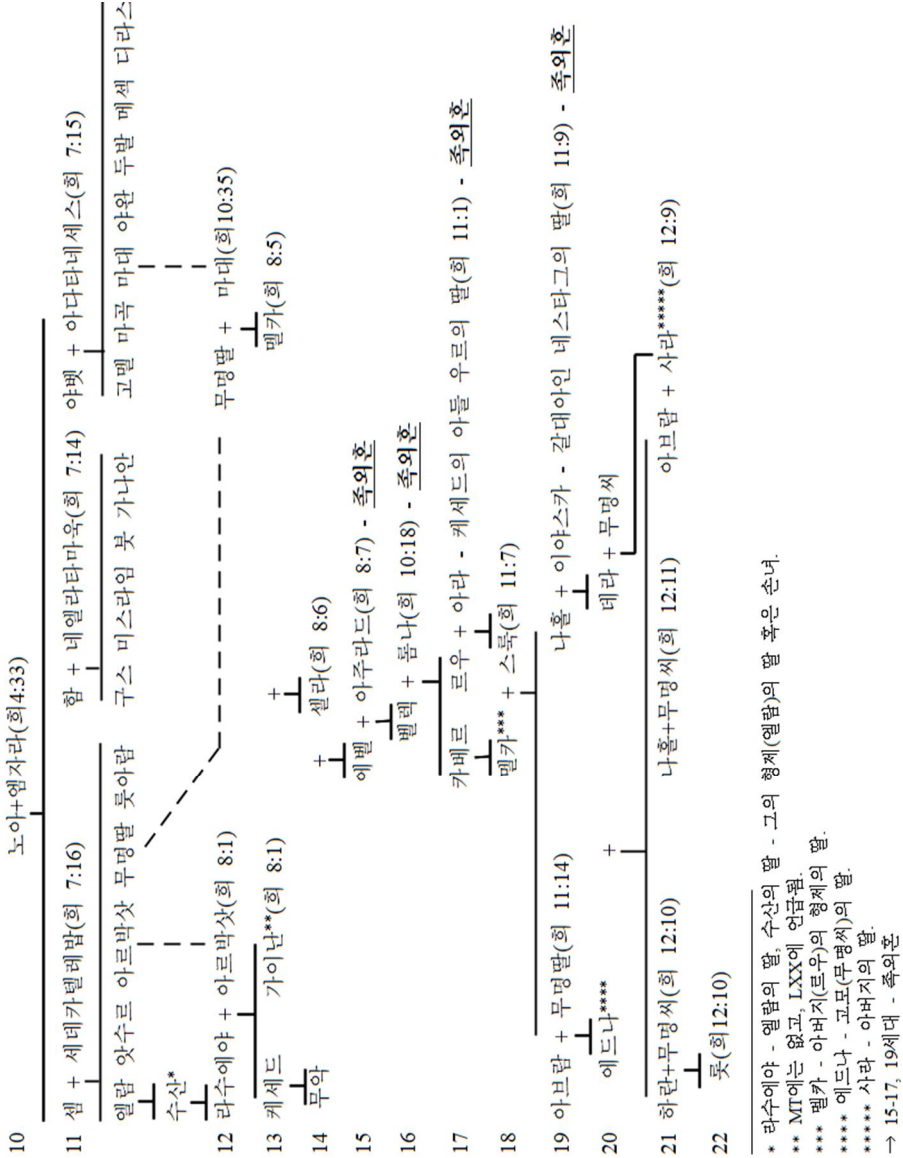
**The Correlation between Idolatry and Exogamy:  
Focusing on Cainan (LXX Gen 10:24; 11:12-13) and Abram in the  
Genealogy of Shem after the Flood**

Changyop Lee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Masoretic Text(MT), LXX, and Jubilees, which are considered canonical by the 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with regard to the post-flood genealogy of Shem in Genesis 11. We examine the genealogy of Shem after the flood, focusing on the figure of Cainan, who is mentioned in LXX Genesis 10:24; 11:12-13 and in Jubilees 8:1-4, and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exogamy and idolatry. Cainan, the 13th generation, introduced astrology in the line of Shem and idolaters appeared in succession thereafter. Endogamy, however, is not synonymous with maintaining the purity of Yahweh worship, and, while a person marries outside a community, exogamy does not directly cause idolatry. However, it seems that within the religious context of specific societies, exogamy and idolatry are mutually influencing factors. In the case of Cainan and his descendants, exogamy appears from the 15th generation, heathens eventually appear from the 16th generation, Peleg, to the 20th generation, Terah.

Due to the exogamy initiated by Cainan, the purity of the bloodline within the line of Shem gradually degraded, and along with exogamy, astrology and idolatry appeared within the line of Shem. Terah's early life was marked by idolatry, but his conversion to monotheism is revealed in his blessing of his son Abram as he prepares to go to the land of Canaan. In contrast to previous generations who worshipped idols, Abram was the one who reinstated the faith of Yahweh to the line of Shem, and also restored the endogamy through his marriage to Sarai. I hope that this paper can serve as an exhortation to the Korean Old Testament academic community that the study of the Book of Jubilees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horizon of Old Testament studies.

<부록> 희년서에 나타난 노아부터 아브람까지의 가계도<sup>48)</sup>



48) Besty Halpern-Amaru, “The First Woman, Wives and Mothers in ‘Jubilees’”, 624-625; Besty Halpern-Amaru,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 30-31 참조. 결혼 기호를 다르게 하였고, 사라 모친인 무명씨를 첨가하였다. MT 창 11:29에 나홀의 아내는 밀가로 소개된다.